

晉州姜氏掌令公派譜 卷之一

序

國有史家有譜以史爲邪正是非之據定萬古君臣明鑑以譜爲系世昭穆之本 備百世宗族要覽國之義忠家之慈孝其理歸一也故虞頌曰以親九族九族既睦治國如此況治家乎吾今日之譜事自丙子譜以後已四十有九載矣念念不遑者昔也乙酉光復後國勢紛紜繼以庚寅六、二五兵燹數年宗族散之四方又以被禍者亦多休戰後以大宗收合尤爲急先累經大同譜事遲延今日此先考未遂之嘆也然壬戌之秋勿溪先祖歲薦時長老先言僉宗合議經一年餘而成編是諸幹事之賢誠頌賀不已余則丁憂臨苫未進重役悚惶已矣更有何辭又以爲齋室講堂重修之急諸宗公論之事切企譜事竣役鳩財餘力所期達成則於爲先之道盡矣願僉宗更各勉之哉蘇氏譜序曰自一人之身至於路人蓋益繁則易疎疎遠則易忘忘則敦睦之心安從而生矣故同祖之孫相視之如路上不識人蘇氏之戒深嘆至當也惟我諸宗不忘祖先之蔭德倍務宗族之和睦矣吁慕効烈祖之赫赫勲業復振奕葉之彬彬榮貴則喬木家聲中興矣自今以後綿綿吾宗勉學奮起哉以余無似乃要弁首故竑敢僭踰

歲甲子正月望間

掌令公 十八代宗孫 哲遠 謹序

序

나라에는 國史가 있고 집에는 家譜가 있으니 國史는 邪正과 是非를 증거로 삼아 萬古에 君臣의 明鑑으로 定하였고 家譜는 世系와 昭穆을 근본으로 삼아 百世에 宗族의 要覽으로 갖추었다 그러니 나라에 임금의 義理와 신하의 忠誠과 집에 父母의 사랑과 子息의 孝道는 그 이치가 歸一하는 것이다 故로 虞頌에 이르기를 九族을 親함으로써 九族이 이미 和睦한다 하였으니 집 다스림도 이 같을진대 하물며 나라 다스림이라 우리 今日의 譜事는 丙子년에 修譜한 이후로 이미 四十九年이 되었으니 생각하고 생각하며 겨를을 얻지 못함이 오래 되었으니 乙酉 光復後 國勢가 어지럽고 이어 庚寅 六·二五事變이 일어나 數年동안에 宗族이 흩어져 四方으로 떠났으며 또 禍를 입은이 또한 많았다 休戰이후에 大宗의 收合으로 더욱 급히 하여 누차 大同 譜事로 인하여 지금까지 지연 하였으니 이는 先考께서 항상 未遂의 嘆息을 하셨던 터이다 그러나 壬戌년 가을에 勿溪先祖의 歲享時에 長老께서 먼저 말씀하심에 여러 宗親들께서 合議하여 一年남짓 경과하여 책을 이루었으니 이 모든 譜事를 주관하신 여러분의 어진 성의를 칭송하여 마지않으며 나는 喪을 당하여 服中에 있어 重役에 나가 살피지 못하여 황송하기 그지없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리요 또 齋室 講堂의 重修가 급함은 諸宗의 公論한 일이니 간절히 바라옵건데 譜事를 마치고 남은 財力으로 期約했던 일을 달성한다면 또한 爲先의 道理도 다하는 것이니 원컨데 僉宗은 다시 각각 힘쓸진저

蘇氏(宋代의 文章 老泉 蘇洵을 이름) 譜序에 이르기를 一人의 몸으로 부터 路人(길에 다니는

行人)에 이르렀다 하였으니 대개 더욱 번성하면 성글기 쉽고 성글고 멀어지면 잊어버리기 쉬우니 잊어버리면敦睦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좇아 생길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同祖의 子孫으로서로 보기를 路上的의 알지 못하는 사람같이 하리니 蘇氏의 경계하심이 심히 지당한 말이로다 오직 우리 諸宗은 先祖의 陰德을 잊지 않고 宗族의 和穆을 배나 힘쓸지어다 오호! 烈祖의 赫赫한勲業을 사모하여 본받고 子孫의 彬彬한 榮貴를 다시 떨친다면 喬木家聲(여러 代를 重要한 地位에 있어 나라와 運命을 같이 하는 집안의 名聲)이 中興할 것이로다 이제부터 앞으로 綿綿히 이어온 우리 宗族은 힘쓰고 힘쓸진저 내가 無似(不肖 自己의 敬칭)한 사람인데 序文을 要하니 이에 감히 참람함을 무릅쓰도다

甲子正月十五日

掌令公十八代 宗손 哲遠 謹啓

序

夫人之有生必有姓有姓必有譜譜謂何諸蓋上自得姓之初下至百世之後一遵規例而無不載之者也昭穆之序宗支之分開卷瞭然至是敦宗族厚風俗之關於人倫重且大者莫若譜矣若論國史與家譜乃名雖殊其義則一也至若國之治亂盛衰家之微顯興替其範疇有大小之別其實則同矣若無史與譜則於何稽考知其前轍而鑑戒者乎惟我晉州

姜氏蓋無不鼻祖於元帥公諱以式自後赫世軒冕麗鮮千年間輔黻王猷史不絕書世稱三韓甲族若無其實而然乎哉吾先祖勿溪公諱宗德當于麗鮮國革之際不屑顯仕晦跡于嶠南之勿溪隱德行義世所推重竊念公之懿蹟必多可聞而歷世久遠裔孫零替若其所存者纔十一矣又况芬苾之所以風磨雨濕頽落尤甚爲其子孫者孰不咨嗟乎此今修譜之所以發也始役于壬戌秋至甲子夏告訖可謂吾門之盛事抑有可告者曰修譜爲吾事已了則否矣勿溪公之大義名節足爲一家規範當講明此義不爲世波顛倒則先祖之靈庶幾曰余有后矣盍相與勉旃今茲修譜實因諸族之協謀任司之賢勞而不肖以淺學非才猥忝首任不可無一言茲書所感以付卷首僭妄極矣

西紀一九八四年甲子五月

日

勿溪公 十七世孫 大琦 謹識

序

대체 사람이 나면 반드시 姓이 있고 姓이 있으면 반드시 譜가 있으니 譜란 무엇을 이르는 것인가 대개 위로 姓을 얻은 처음부터 아래로 百世의 후에까지 하나로 規例를 좇아 기록한 책이니 昭穆의 차례와 宗支의 나뉠이 冊을 한번 열어보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지라 이로써 宗族간에 돈목하고 風俗을 순후하게 하는 것이니 人倫에 관련됨이 家譜만큼 중대한 것이 없다 論할 것

같은면 國史와 家譜는 그 이름은 비록 다르나 그 義意는 한가지이니 나라의 治亂과 盛衰며 집안의 微顯과 興替가 그 範疇는 大小의 다름이 있지만 그 實狀은 한가지 인지라 만약 國史와 家譜가 없다면 무엇을 상고하여 그 前轍을 알아 鑑戒할 수 있겠는가 오직 우리 晉州姜氏는 元帥公 諱 以式으로 시조를 삼지 않음이 없으며 이 후로부터 代代로 벼슬이 赫赫하여 高麗 朝鮮 千年間에 나라의 임금을 보필하여 史記에 기록이 그치지 않았으니 世上에서 三韓의 으뜸가는 氏族으로 일컬었으니 만약 그 실상이 없었으면 그러하였겠는가 우리 선조 勿溪公 諱 宗德께서 高麗에서 朝鮮으로 바뀔 즈음에 당하여 높은 벼슬을 탐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嶺南의 勿溪村으로 자취를 감추어 德을 숨기고 義를 행하여 世上에 推重한바 되었다 가만히 생각컨데 公의 아름다운 행적이 반드시 들을만 한 것이 많을 것인데 세대를 지남이 오래되고 후손이 침체하여 그 存在함이 겨우 十分의 一에 지나지 않는다 또 하물며 祭祀올리는 齋室까지도 바람에 씻기고 비에 젖어 퇴락됨이 더욱 심하니 그 子孫된 자로써 누가 슬피 탄식하지 않으리요 이로써 이제 修譜의 의논이 발단된 것이다

壬戌年 가을에 일을 시작하여 甲子年 여름에 이르러 일을 마치니 가히 우리 門中의 盛事라 하겠도다 가히 할 말이 있으니 修譜를 했다고 해서 우리 일을 이미 마쳤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다 勿溪公의 大義와 名節이 족히 한 家門의 規範이 되나니 마땅히 이 뜻을 講論하고 밝히려 世波에 거꾸러지지 않는다면 先祖의 英靈께서 무릇 나의 后孫을 두었다고 이르실 것이다 어찌서로 힘쓰지 아니할 것인가 이번 수보에 있어서는 실로 諸族의 協謀와 任員여러분의 賢勞에 基因

하였다고 본다 不肖이 사람이 淺學 菲才로써 외람되게 首任을 맡아 가히 一言이 없지 못하겠
기에 이에 所感을 써서 책머리에 부치니 僭妄함이 지극하도다

西紀一九八四年甲子五月 日

勿溪公十七代孫 大琦 謹識

序

아! 장하도다 高句麗大平原에서 百萬隋軍을 屠戮하여 一世를 風靡하시
던 鼻祖兵馬都元帥姜以式將軍님의 굳건한 氣像과 聖스러운 血統을 이어받은
우리 姜氏는 다시 南으로 數千里 飛鳳靈山の 精氣祥瑞롭게 어리고 南江물
구비 돌아 豐饒로운 沃土田을 이룬 名勝晉州땅에 뿌리내려 滔々한 歷史의
흐름을 타고 綿々이 이어온지 一千三百有餘年 金紫銀靑과 淸顯名德이 燦爛
한 宗史를 이루고 名公鉅卿과 淸宦美諡가 麗鮮之代를 赫々하게 빛내니 實로
東方의 大姓이라 아! 아름답도다 忠義之門의 거룩함이며 우리 落鄉先祖
掌令公께서는 先訓의 遺志를 받들어 宦路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安東勿溪村
(現醴泉郡甘泉面井田里)에서 誅茅卜居하시매 하늘같은 節義가 여기에 빛

나시니 그로부터 五百年 不億後孫들의 感懷가 이번 譜事를 通하여 더욱 無量하여라

族譜는 예로부터 위로는 同族의 昭穆과 世系를 밝혀 崇祖愛族思想을 鼓吹시키고 아래로는 後孫들로 하여금 敦親睦族하는데 그 큰 뜻이 있다 할 것이다 오늘날 人類는 高度의 科學文明下에 世界는 地球村이 되어 일가 친척이 五大洋 六大洲로 散居하게 되고 物質優位의 産業社會에서 核家族이라는 美名下에 한 家族마저도 分散하여 우리 固有의 傳統思想은 자꾸만 褪色하여가고 倫理道德마저도 사정없이 侵害 당하는 推勢로 흐르고 있으니甚히 痛嘆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此際에 本譜를 이루게 되고 逸南齋를 重建하게 되니 이를 契機로 産業社會로부터 愛族思想을 振作시키고 物質萬能으로부터 忠孝精神을 回生시켜 敦親睦族의 崇高한 精神文化를 꽃피워야 할 것이다

이번 譜事를 이루게 됨은 再昨年 時享時에 頽落한 逸南齋重修問題를 論議中副熙賢宗의 發議로 會同僉宗이 欣然贊同一舉에 派譜와 逸南齋重建兩大事業을 이루게 되니 우리 門中의 一大快事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모름지

기우리는 各家庭마다 本譜를 一帙式 所藏하여 朝夕으로 펼쳐보아 千派一本
萬枝同根의 哲理를 깊히 깨닫게 하여 敦睦之風과 思考之心이 油然而 發하게
하여 後人들로 하여금 生活의 指標로 삼게 하여야 할것이다 끝으로 이번
譜事를 爲하여 功이 크신 委員長님을 비롯하여 任員 여러분들의 勞苦에 늘
은 致賀를 드리며 오랜 時日을 大田現地에서 客苦를 무릅쓰고 不徹晝夜 精
進하여 本譜를 成功的으로 刊行한 翊遠 仁聲 聲浩甫에게 深々한 感謝를 드리
며 淺學非才로 悚懼한 마음에 몸둘바 모르며 삼가 序文에 代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四年 甲子 六月 日

掌令公 十六代孫 明秀 盟手 謹識

夫譜蓋承先裕後之道也竊惟朝鮮肅宗乙丑惟我先祖始修世譜而使我子孫尊先祖而貽後孫序昭穆而敦宗族乃所謂南漢譜也自後繼世而刊行曰大同譜曰派譜是亦理勢之所然也蓋以尊先譬之若天有北斗而衆星拱之地有崑崙而衆山擁之蓋人亦若是人有祖先而諸孫尊之皆語異而理一其所尊之事亦無他焉蓋嘗論之惟我先祖勿溪公懿行美蹟恐其愈久而愈泯故潤色以譜傳之於後世者是也至於講堂則歲月滋久爲風雨所傷是以夙夜思服者是已又況一紀之間時異事變故裔孫之生卒嫁娶及斧堂之遷移住居之離散殆若不知若今不修譜則恐散漫而無統紀此是役之所以發也若言譜規一依舊例或從時宜略有變例且文獻難解處則附以譯文圖所以便覽焉第告家藏戶奔置于案上朝暮偶目上以慕列祖之風下以敦諸族之誼則修譜之大義盡在此矣今舉譜役始終賢勞者明秀氏炳熙翊遠仁聲聲浩甫而其功實大矣諸宗請余於跋文以不文固辭不獲不佞猥忝是役所感于中者略舉如右云爾

西紀一九八四年 甲子 仲春

勿溪公十七代孫 奭熙 盥手 謹識

跋

대개 族譜는 先祖의 遺業을 繼承하고 後孫의 變영을 卽하는 도리이다. 가만히 생각컨데 朝鮮肅宗乙丑(西紀一六八五年)에 우리 先祖께서 비로소 우리의 世譜를 淸으셨으니 우리 子孫으로 하여금 先祖를 숭배하고 後孫을 깨우쳐 昭穆을 밝히고 宗族의 化育을 돈독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남한보이다. 이로부터 대대로 이어 大同譜와 派譜를 간행 하였으니 이 또한 당시의 형세로 그러한 것이다. 대개 선조를 높인다 함은 비유하건데 하늘에 北極星이 있는데 여러 별이拱揖하고 땅에 崑崙山이 있는데 많은 山들이 擁圍하는 것과 같은지라. 사람 역시 이와 같아서 祖上이 있음에 諸孫이 높임과 같은지라. 모두 말은 다르지만 이치는 한가지로서 그 높이다는 뜻에서는 다름이 없는 것이다.

대개 의논컨데 우리 先祖 勿溪公의 아름다운 行蹟이 오래됨에 따라 더욱 없어질가 두려웁기 때문에 족보에 潤色文采를 加함하여 후세에 전함이 이것이며 講堂에 이르러 말한다면 세월이 오래되어 風雨에 씻기고 퇴락되니 이로써 밤낮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이었다. 또 하물며 一紀의 사이에 時代가 변천하여 후손의 生卒과 嫁娶 및 묘소의 옮김과 移居로 인한 흠어짐 등을 자못 알지 못하는지라 만일 이제 修譜를 아니하면 산만하여 기강을 세울수 없을까 두려우니 이것이 본 譜事의 발단이었다.

譜規를 말할것 같으면 거의 舊例에 의하고 후 時俗을 좇아 간략한 變例는 있었으며 또 文獻의 難解한 곳은 譯文을 부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겠음 도모하였다. 권고할바는 집집마다 所藏하여

책상위에 올려놓고 아침 저녁으로 눈익혀 보아 위로 列祖(여러 先祖)의 遺風을 추모하고 아래로 諸族의 族誼를 돈독히 한다면 修譜의 大義가 바로 이에 있는 것이다

금번 譜事에 始終 賢勞한 明秀氏 炳熙 翊遠 仁聲 聲浩의 공로가 실로 컸었다 諸宗이 나에게 跋文을 청하니 글을 못하여 글이 사양하였으나 얻지 못하고 불명(不佞·自己의 謙稱)이 외람되 이 이 譜事에 참여하여 마음에 느낀바를 간략히 들어 右와 같이 이르노라

西紀一九八四年 甲子 仲春

勿溪公 十七代孫 奭熙 盥手 謹識

跋

竊料하건데

凡 譜事는 上下의 血統을 밝혀 위로 崇祖報恩之道를 高唱하고 아래로 和族睦孫之義를 振作시키자는 일이니 倫理道德上의 一大快事라 하겠읍니다 東國巨族인 우리 姜姓에서도 累次에 걸쳐 大小譜事가 있었던 것은 實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으나 遺憾스러운바는 天時에 따른 災變과 歷史에 겹친 兵亂으로 말미암아 不幸하게도 一族同孫이 京鄉各地에 散居하게 된 緣由로 大同 合譜가 極難하여 徃徃派譜에 그치고 派譜마저도 間或漏譜가 있게 되었던 事

實입니다 在靈群居吾門에서도 仁祖朝丁卯胡亂때 倡義討賊之戰에 參加하셨던
副司直公五世孫諱利載進士公께서 湖南西海沿邑靈光에 落鄉着居하시게된 後
로 時代的紛擾와 地域的間隙이 同族間의 融和惇睦에 障壁이 되어 高宗朝甲
寅大同譜以後 丁酉辛酉兩譜事가 아쉬웁게도 派譜에 그치는 事例를 남기게
되었던바 千萬多幸하게도 今番 甲子 掌令公派譜에는 掌令公以下昆季諸門이
一門도 闕漏없이 無欠具足한 完譜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이는 오직 同宗諸
賢의 至極한 崇祖精神과 惇篤한 愛族思想에서 發生됨이니 累代祖先廟前에
부끄러움 없이 獻上할 수 있고 列世後孫裔下에 자랑스러이 남길 수 있는 萬
世不朽의 金字塔임을 외람되이 믿어마지 않습니다

西紀一千九百八十四年甲子六月

日

掌令公 十九世孫 靈光 成泰 謹識

跋

모진 風霜을 克服하면서 無限한 虛空을 向하여 千枝萬葉으로 鬱鬱蒼蒼하
게聳立한 喬木의 밑바닥에는 大地의 深層에서 默默地 營養을 供給하는 뿌

리가 있고 平原曠野에 滔滔히 흐르는 長江大河의 그 淵源에는 深山幽谷에서
湧出하는 源泉이 있음이다

무릇 人間이 遠大한 抱負와 希望을 안고 生을 享有하고 있음은 偉大하신
先祖님들의 河海같은 蔭德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先祖님들의 崇高한 業과 高潔한 血統을 이어받은 우리 子孫으로
서는 先祖님들이 끼친 크나큰 功德을 어찌 잊을수 있을가 이에 우리는 祖先
들의 훌륭한 偉業과 遺志를 받들어 이를 繼承 發展시켜 길이 後孫에게 물려
주는 것이 後裔된 義務이자 道理일 것이다 흔히 우리 姜氏를 일컬어 東方
의 望族이라 하여 우리들에게 自負와 矜持를 갖게하는 것은 綿々히 이어온
千有年の 歷史를 通하여 우리 列聖祖들이 남기신 業績이 燦爛히 빛나기 때
문 이리라

유구한 歷史를 通해 綺羅星 같은 名公鉅卿이 輩出되어 民族과 國家의 隆
盛 發展에 赫赫한 治蹟을 남겼으나 混濁한 世態를 당하여 派祖掌令公께서
는 先考通政公의 遺志를 받들어 世波와는 담을 쌓고 草野에 묻혀 自然과 더
불어 悠悠自適 吟風咏月로 自足하신 節義는 後生의 龜鑑이요 精神的 支柱

로 永遠히 이어져갈 것이다

특히 이번 掌令公(諱宗德)派譜는 一九八二年 가을에 發議되어 短時日內에 完成하게 되었음은 오직 先祖님의 加護와 僉宗 여러분께서 積極 協助해 주신 結實임에 慶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더욱이 이번 本譜 編纂을 契機로 養眞堂과 逸南齋의 宿願事業이 完遂되었으니 이 또한 一石三鳥의 快舉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現代 科學文明이 加速的으로 發達할수록 우리 固有의 傳統인 崇祖 美風이 衰退一路에 있는 現時点에서 父母님께 孝道하고 祖上을 崇仰하며 宗親間의 融和團結에 寄與할 수 있는 뜻깊은 本譜의 刊行을 再三 慶祝하면서 아울러 子子孫孫의 無窮한 繁榮과 發展을 眞心으로 祝願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四年六月中 泮

掌令公 十九代孫 儀銓 謹識

跋

夫有姓氏者必有譜牒姓氏者統其祖宗之所自出別其子孫之所自分故莫不尊祖追遠益勤莫不睦族源遠益敦禮曰尊祖故敬宗敬宗故睦族自此所以立大宗小宗之法宗統

確立序次并正奠系世辨昭穆派分行列一目瞭然孝悌睦友之道油然而生矣此所以爲譜合之本意也噫惟我 掌令公派譜事自丙子以來四十有九載間有大同譜之累纂而未遑矣宗孫燦熙氏盡誠於爲先殫力於宗事嘗言吾累經譜事尚未遂掌令公派譜云竟未果而棄世于壬戌之秋可勝痛哉是歲秋掌令公歲一事時門中長老先發修譜之議僉宗猶有晚時之嘆矣於是乎設廳于醴泉邑經一年餘而單畢是甲子春始入鋟梓矣賢勞諸幹事之部署別表附末故不復重焉判官公諱居仁下承統事當人倫正宗統也孰敢曰不可且世遠人亡文獻衰殘不無杞宋不證之歎矣及其時也宗統焉而反爲不宗疑其宗統附系焉而猶爲不附僭其倫序如此則舉綱而目不張培根而枝不達此豈非吾宗之大不幸也哉由是此舉非宗派之私見也宜諸宗之公議也何傷于自謂博識者之譏誚乎又有急先勿溪先祖齋室講堂歲久年深風雨所磨傾頽毀損莫甚於今日故重修一論響應如雷竣功如期顧念今日吾宗繁盛之榮先慕從來先靈默佑之德於崇慕烈祖之偉業厚重宗族之敦睦以不忘其本使獎勵雲仍則吾門之大吉昌必無窮矣凡吾同譜僉君子勉之哉勉之哉以余不文敢茲贅辭

檀紀四三一七年甲子春正月哉生魄

勿溪公十九世孫 聲烈 謹拜書

跋

대저 姓氏가 있음에 반드시 譜牒이 있으니 姓氏라 함은 그 祖宗의 出處를 系統으로 나타내고 그 子孫의 分派를 분별한 것이니 故로 先祖를 높이어 追遠에 더욱 부지런히 하고 宗族끼리 和穆하여 親誼에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다 禮記에 이르기를 祖上을 높이기 때문에 宗家を 공경하고 宗家를 공경하기 때문에 宗族을 和睦케 한다 하였으니 이로부터 大宗 小宗의 法을 세워 宗統을 확립하고 序次를 井井히 하며 世系를 정하고 昭穆을 분별하여 分派와 行列이 한 눈에 瞭然하여 孝親睦族의 道가 油然而 然한 것이니 이는 譜牒의 本意가 되는 것이다

오호! 우리 掌令公派의 譜事는 丙子년 이후로 四十九年이 되었는데 그간에 大同譜의 여러 차례 간행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했다 宗孫 燦熙氏가 爲先에 성의를 다하고 宗事에 힘을 다하였는데 일찍 말하기를 우리가 누차의 譜事를 겪었으나 아직것 掌令公派譜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니 마침내 이루지 못하고 壬戌년 가을에 돌아가시니 가히 애통하도다 이해 가을 掌令公歲事時에 門中長老께서 먼저 修譜의 의견을 발의하심에 여러 宗親들이 오히려 때 늦은 탄식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譜所를 醴泉邑에 설치하고 一年남짓 경과하여 整單을 마치고 甲子년 봄에 비로소 印刷에 들어갔다 賢勞하신 諸幹事의 部署는 따로 표시하여 譜牒끝에 붙였기 때문에 다시 거듭 쓰지 않는다

判官公 諱居仁의 아래에 承繼事는 人倫에 正當하고 宗統이 바르니 누가 감히 不可하다 하리요 또한 世代가 멀어지고 사람이 죽고 없으며 文獻이 衰殘하면 杞宋의 증거치 못할 탄식이 없지 않

을 것이다 그때에 당하여 宗統을 도리어 宗族이라 아니하며 그 宗統을 의심하고 附系로써 오히려 附系라 아니하여 그 人倫의 차례가 참람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한다면 綱領을 들치어도條目이 따르지 않고 뿌리를 북돋우어도 가지가 뻗지 않을 것이니 이어져 우리 宗族의 큰 不幸이 아니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이번 譜事는 宗派의 私見이 아니오 諸宗의 公議이니 어찌 博識한분의 기롱과 꾸지람을 받겠는가 또 急先務가 있으니 勿溪先祖의 齋室과 講堂이 해가 오래되어 風雨의 피해로 퇴락하여 훼손됨이 今日보다 심할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重修하자는 의논이 響應함이 빨라 竣功을 기약할수 있는지라 돌이켜 생각컨데 今日에 우리 宗族의 번창함이 先祖의 英靈께서 默默地 도우심에서 나온 것을 알겠도다 어호! 烈祖의 偉業을 崇慕하고 宗族의 敦睦을 두터이하며 그 근본을 잊지 않고 後孫을 장려한다면 우리 門內가 크게 번창하여 반드시 무궁하리라

무릇 우리 함께 修譜한 여러 君子께서는 한층 더 힘쓰고 힘쓸진저 내가 글도 못하는데 감히 이에 군말을 하였도다

西紀一九八四年春正月哉生魄

勿溪公十九代孫 聲烈 謹拜書

記

우리 晉州姜氏의 譜史를 살필진대 肅宗乙丑(一六八五年)에 忠穆公諱瑜號商谷先祖任의 主導로 刊行한 南漢譜를 爲始하여 그 後數十次나 重刊한바 있었다 그러나 掌令公派로서는 西紀一九三八年戊寅에 初譜를 發刊한 以來約半世

紀만에 重刊을 보게 되었으니 晚時之嘆이 없지 않으나 그 동안의 移遷新封婚姻
生卒等 많은 變改事項을 仔細히 整備補完하여 刊行하게 되었으니 그 意義가
자못크다 할 것이다 또한 이번 修譜刊行이 하나의 契機가 되어 逸南齋 重建
과 아울러 安東의 恭穆公養眞堂 亭閣의 竣工도 함께 보게 되었으니 二重三重
의 收獲과 凱歌를 올리게 되어 그 喜悅을 形言할길 없다 이 快舉야말로 平素
우리宗門의 協同과 團合의 底力을 誇示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族誼를 다져 崇
祖精神을 더욱 鞏固히하고 宗中의 人和를 敦篤히하며 士氣를 高揚하는대 크
게 이바지하였다

무릇 譜牒은 祖上先代의 系譜를 밝혀 自我의 序屬과 行列을 알림과 同時에
다음世代의 宗事執行에 寄與하는바 期待가 큰것이다 그러기에 이 譜牒이야
말로 우리宗門의 寶鑑이요 吾姜의 山 歷史敎本으로 僉宗의 家家戶戶에 常備
하여 後孫들에게 기리 傳授할만한 값진 遺産인것으로 믿으면서 頭序없이 記
述하는 바이다

西紀一九八四年甲子六月 日

十七代孫 副熙 삼가 쓰다

舊譜序

乙丑譜序

南漢譜

晉山之姜吾宗也自鼻祖元帥公以後世有冠冕名公鉅卿赫赫繼武爲東國大姓者千有餘祀支分派別兄弟之子爲堂從堂從之子若孫爲再從三從而後屬浸疏終歸於路人然顧其初則一也何忍昧昧不知其今之雲仍爲昔某公之支派而視之若路人哉嗚呼此譜之所以不可不作而其有關於追遠而敦叙者非淺鮮也宗人姜都事碩老甫專精致力考出世系次第纂成一譜別錄其子孫而宅相以下不與焉以同宗爲重故也其追遠之誠敦叙之誼實在斯譜而吾宗之一大幸也蘇老泉族譜引曰觀吾譜者孝悌之心油然而生矣余亦曰觀斯譜者亦足以感發其善端而無復有路人視之歎也況當衰替不振之日苟能因斯譜而上念祖先之遺烈而務自奮起焉下勵子孫之頽習而期以立揚焉芝蘭玉樹之寶滿於謝氏之庭高車駟馬之慶溢於于公之門使之轉今而回昔則抑可見斯譜之有助而尤不爲幸中之幸歟噫老者勸之少者勉之則茲亦不難致也明矣諸君以余齒最長強請爲之弁辭不獲於是乎書

歲丁未清和之閏下浣不肖

後孫通訓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官瑜謹序

南漢譜序

贈 吏判 諡 忠穆 公 掌令 公 后

晉山の姜氏は 우리 종족이라 시조 元帥公으로부터 이후 대대로 벼슬이 많아 名公 鉅卿의 혁하게 이어 東國의 大姓이 된지 千餘年에 가지가 나뉘고 派가 갈리어 兄弟의 아들이 堂從(四寸兄弟)이 되고 堂從의 아들 손자가 再從 三從이 되니 後屬이 점점 성글어져 마침내 路人(行人)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그 始初를 돌아보건대 하나이니 어찌 참아 昧昧(어두운 모양)하여 지금의 子孫을 옛에 某公의 後孫이 됨을 알지 못하고 보기를 路人같이 할것인가 오호! 이에 족보를 가히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니 그 先祖를 추모하고 後孫의 돈목에 관계됨이 적지 않은것이라 宗人 都事 碩老甫가 이에 오로지 정성과 힘을 다하여 世系의 차례를 삼고하고 一譜를 편성하여 그 子孫을 기록하고 宅相(사위를 이름)이하는 기록하지 않았으니 아는 同宗을重히 여긴 때문이다 그 追遠의 至誠과 敦叙의 情誼가 실로 이 보첩에 있으니 우리 宗族의 一大慶幸이로다

蘇老泉(宋나라의 文章 蘇洵 字는 明允 號는 老泉 아들 軾 轍과 함께 唐宋 八大家의 한사람)이 族譜의 序에 이르기를 우리의 족보를 보는이는 孝悌의 마음이 油然而生기리라 하였으니 나 또한 이르노니 이 족보를 보는이는 족히 그 善의 근본에 感發하여 다시는 路人으로 보는 歎息이 없으리라 하물며 쇠퇴하여 떨어지지 못하는 이때를 당하여 진실로 능히 이 족보를 기인하여 위로는 先祖의 끼친 업적을 생각하여 스스로 분발함에 힘쓰고 아래로는 子孫의 퇴폐한 습속을 고쳐 立身揚名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芝蘭玉樹(재주가 뛰어난 사람의 비유)의 보배가 謝氏의 뜰에

득하고 高車駟馬(높은 수레와 네말이 끄는 수레 즉 貴人을 비유함)의 경사가 于公의 門에 넘치
리니 이제에 이르러 옛을 들이켜 보면 이 족보가 도움이 됨을 볼 것이며 더욱 다행중 다행한 가
운데 다행이 아니겠는가

오호! 老人은 勸獎하고 젊은이는 힘쓴다면 이에 아니 될일이 없음은 自明한 일이니 諸君이
내 나이가 가장 많다 해서 序文을 강력히 청하니 사양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쓰노라

歲丁未閏四月下浣不肖後孫通訓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叅贊官春秋館修撰 瑜 謹序

掌令公舊譜序

譜也者普合宗族昭錄祖先世代歷叙子孫承繼同其祖同其行則雖幾十百世支分派列
乃知某祖某派幾代孫也上古則未聞作譜而自眉山蘇氏以來天下靡然效之吾姜之譜
始于 肅廟乙丑南漢譜而自其後或一甲而成或一紀而成或有事於先所而成非不頻
數又設勿溪公派譜何逸南齋成于今七年所費尚未清帳通亭公遺集中刊未遑勿溪公
墓碣改豎則意未遂久矣况又年前累次之譜迷於浩漫間多錯誤漏失之歎也宗孫燦熙
甫誠於爲先幹於宗事與達永秀寅爛商叶議飛通同派諸族則皆響應如雷不數年而成
卷帙小而訂校精無失誤之悔真是吾派明鑑譜也如余無狀添任之故辭不得已記實如
右

西紀一九三六年丙子之甯月中澣 勿溪公十五世孫 世永 謹撰

掌令公 舊譜序

族譜라 함은 宗族을 널리 모아 祖上의 世代를 밝게 기록하고 子孫의 繼承을 두루 叙述하여 그
 先祖가 같고 그 行列이 같으면 비록 몇 十百世의 가지가 나뉘고 派가 갈렸더라도 이에 아무 先
 祖아무 派 몇 代孫인줄 알게 되는 것이다 上古에는 族譜를 만듬을 듣지 못하였는데 眉山蘇氏
 (宋나라 學者 蘇洵 字明允 號는 老泉 아들 軾 轍과 함께 唐宋八大家에 드는 名文章)가 족보를
 만드느 뒤로부터 그 후로 天下 사람들이 이를 본받았으니 우리 姜氏의 족보는 肅宗乙丑(西紀一六
 八五年)에 刊行한 南漢譜로 비롯하여 그 후부터 후 一甲(六十年)만에 修譜하고 후 一紀(十二年·
 후 三十年·후 一百年)만에 修譜하며 후 先事에 일이 있으면 빈번히 하기도 하였으니 또 勿溪公
 派譜의 설치는 逸南齋의 일을 마치고 이제 七年인데 아직껏 帳簿를 청산하지 못하고 通亭公의
 遺集을 重刊하려다 마치지 못하고 勿溪公의 墓碣을 改竪하려는데 뜻을 이루지 못한지 오래되었
 다 하물며 또 年前에 간행한 累次의 譜가 浩漫하여 혼미하고 사이로 錯誤와 漏失의 歎이 많은지
 라 宗孫 燦熙甫가 爲先에 지성이 있어 宗事를 주관하여 達永 秀寅으로 더불어 원만히 토의하고
 通文을 同派 諸族에게 널리 보내니 모두 호응이 빨라 몇년 안되어 책을 이루니 帙數가 작고 校
 訂이 精密하여 착오가 거의 없었으니 참으로 우리 派의 밝은 譜牒이라 할수 있도다 내가 별 功
 績도 없는데 任事의 책임이 있었던 연유로 사양을 얻지 못하고 右와 같이 事實을 기록하노라

丙子(西紀一九三六年)三月中澣

물계공 十五世손 世永 근찬

始祖姜以式(元帥公)遠世孫

一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啓庸 계용

子引文 인문

子師瞻 사침

子昌富 창부

子璜寶 황보

子孫奇 손기

文科 國子博士 高麗元宗西紀一二七四年甲戌以通信使書狀官入日本還封晉山府院君掛冠不仕事見遺事後孫錫夏贊曰縉惟講帳儼師道於靈宮租帶青衿想成均於賢館平生一節專對金烏之邦大名千秋永繫朱雀之影

文科 殿中內給事博高麗忠烈王朝殿中監察御史 以孫君寶之貴 贈判內議令參理副使見乙丙兩譜 羅州鄭氏譜云樞密府使墓在草溪甲山失傳西紀一七七六年 英祖丙申後孫設壇行祀十七世孫應教世白撰壇碑文西紀一八〇一年辛酉從享鳳山祠舊碑字多缺虧故庚申改堅舊碑埋于壇傍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西紀一三三六年丙子 忠肅王南宮敏榜登第歷政堂文學僉議評理藝文館大提學三重大臣門下左侍中封鳳山君致仕西紀一三八〇年庚申卒諡文敬墓慶北高靈郡星山面御谷洞帝釋山(舊星州嘉利縣代寺前)丙坐有李牧隱穡權陽村近挽詞見遺事後孫震聲述墓誌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壽 손수

忠烈王辛巳再征以公曾知道里又舉爲通信使書狀官風濤險難且因兵交瀕於死者累矣及還不復仕戒子孫勿業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配府夫人羅州鄭氏父三西紀一三四六年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喬 손교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命 손명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著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

儒術事見輿地勝覽

後孫錫夏贊曰叔孫氏之玉帛二代出疆博望候之星槎八月泛漢楚與宋閑解楊屢濱於危齊失晉和固高幸脫於禍陸生之有文奚取庾家之遺訓斯勤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陰版圖正郎 忠穆王丙戌以鷄林判官移任永川 贈重大臣門下侍中晉原府院君墓慶南陝川(舊草溪)郡栗谷面甲山里龍德山壬坐

宰臣判密直兼吏兵部事 配淑夫人安東權氏父左尹復經

子孫蒞 손서